

차세대 혁명 'XML 비즈니스' 급부상

전자상거래, DBMS, ERP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도

인터넷 이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 기존 인터넷 표준 언어인 HTML이 XML이라는 차세대 언어로 대체되고 있다. 현재 XML은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DBMS, ERP, 전자도서관, 지식관리시스템, 정보검색시스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용되는 등 비즈니스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XML과 관련한 정보 기술업계의 대응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 언어이다. HTML의 확장 언어격인 XML은 홈페이지 구축 기능, 검색 기능 등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XML은 인터넷 사용자가 웹 콘텐츠의 작성을 비롯해 관리,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HTML은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원할 수 없는 반면 XML은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뜻대로 조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최근 프라이스워터하우스는 『비즈니스 기술전망 보고서』에서 "XML은 향후 3년안에 인터넷 비즈니스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촉매제로 작용할 될 것"이라 밝혔다.

한국지식웨어 연구소의 최한석 소장은 "XML이 널리 채택되면 정보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인터넷 검색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검색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접속으로 인한 웹서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관계자는 "XML이 정보검색분야에 응용될 경우 검색의 지연이나 오류, 인터넷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보안과

정보교환의 불편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XML이 인터넷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 언어를 사용할 경우 그동안 인터넷 사용자들이 느꼈던 많은 불편과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신속한 전자상거래 업계

XML의 웹 상에서의 이점 때문에 인터넷 쇼핑물과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가장 빠르게 활용되고 있다. XML 태그를 인터넷 쇼핑물에서 사용하면 특정 제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하고 싶을 때 간단한 문장으로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서 교환인 EDI를 용이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기존의 EDI는 기업간에 문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송신자, VAN 사업자, 수신자 사이에 교환할 문서를 미리 정의해야 하며 멀티미디어적인 자료 전송이 어려운 점이 있는 등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며, "XML을 이용하면 문서, 정보처리를 위한 전용 EDI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점에 따라 e비즈니스를 주창하는 IBM을 비롯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등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은 저마다 다른 XML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IBM은 EC 솔루션인 '넷커머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인 '웹스피어', 전사적 애플리케이션 통합 솔루션인 'MQ시리즈' 등에서 복합적으로 XML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넷커머스와 웹스피어의 일부 기능을 통합할 계획인데 통합 모듈에는 XML 해석기 기술이 적용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인 XML 워킹그룹에 SAP, 오라클 등의 ERP 업체들을 참여시켜 기업간 전자상거래 솔루션인 '비즈토크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 예정인 '비즈토크 프레임워크'는 모든 것이 XML 기반 위에서 운영되며 기존 전자상거래 솔루션인 '사이트 서버 3.0 커머스 에디션'과 점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오라클은 기존 ERP를 바탕으로 최근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의 데이터 전환과 전송 등에 필요한 메시지 브로커를 XML를 이용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DBMS의 핵심 기술로 부상

한편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업체인 한국오라클, 한국IBM, 한국사이베이스, 한국인포믹스도 XML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DBMS가 XML을 지원할 경우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XML 또는 HTML 형태의 데이터를 마치 기업 내부의 데이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추세라면 XML은 DBMS업계의 핫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 밝혔다.

한국오라클(대표 강병제)은 데이터베이스에 컬럼 또는 테이블로 저장된 데이터를 선택하면 XML 형태로 출력해주는 'XML 유틸리티'를 비롯해, XSQL이라는 확장자가 붙은 파일의 쿼리(Query) 태그를 이용해 DB 조회문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XSQL 서브릿', 기업 내외부에 있는 XML 문서를 DBMS로 저장하기 위해 컬럼 또는 테이블 형태로 분석해주는 'XML 파서'를 선보였다.

한국IBM(대표 신재철)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XML 데이터를 해석하는 XML 파서와 DB에 저장된 XML 문서를 검색하는 DB2 텍스트 익스텐더 등을 지원하며 DB2 자체가 XML 태그를 수용할 수 있는 'DB2 유니버설 데이터베이스 6.1'을 준비 중이다.

한국인포믹스(대표 김광원)는 하반기에 인포믹스 다이내믹

서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HTML 태그를 인포믹스 DBMS 태그로 변환해 주는 '웹데이터 블레이드'와 DBMS에 저장된 인포믹스 독자적인 태그를 관리하는 '데이터 디렉터 포 웹'을 업그레이드한 '인포믹스 다이내믹 서버 워드 유니버설 서버 옵션' 신제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한국사이베이스(대표 김지문)는 XML 데이터를 DBMS에 변환 저장과 자체로 수용가능한 '사이베이스 어댑티브 서버 12.0'을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 오브젝트디자인사의 OODBMS인 '오브젝트스토어'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데이텍(대표 양덕준)도 최근 XML 및 자바 기능을 크게 강화한 '오브젝트스토어 6.0' 신제품을 출시했다.

국내 S/W업체들의 약진

XML과 관련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문서관리 분야에서는 NC소프트, 한국지식웨어, 테크노2000, 한국정보공학, 언어기술, 휴먼컴, 상지소프트, 유진데이터, 퓨처인터넷 등이 차세대 인터넷 문서표준인 'XML'에 기반한 편집기를 비롯해 인터넷 문서 저장 SW, 문서변환기 등을 잇따라 선보이거나 개발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인포메이션뱅크는 VAN 대신에 인터넷을 이용하며 문서 처리를 할 수 있는 'XML/EDI'를 개발하면서 창업투자회사로부터 1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한국지식웨어는 최근 XML 구조문서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인 'XRMS'를 발표하면서 지식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모색 중에 있다.

테크노2000프로젝트는 리포지터리 관리 시스템인 'XDMS2000'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정보공학(대표 유용석)은 올초 XML 기반 리포지터리 관리 시스템인 '포지웨어 1.0'을 출시, 그룹웨어, 전사적자원관리(ERP) 등과의 연계를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XML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는 벤처캐피탈로부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상태로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인력을 확충 중에 있다"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XML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